

# IMF와 제주사회

김진영

## 1. 세계화, 한국사회 그리고 제주사회

한국사회는 지난 60년대 이후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세계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의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을 하여왔다. 이른바, 수출지향적 산업화전략하에 이룩한 성취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경제발전의 모범적 모델로 평가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급속한 성장은 외부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외부시장의 변화만 주어져도 문제를 수반하는 허약한 체제적 성격을 동시에 수반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부적으로는 재벌기업으로의 부의 집중,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 많은 구조적 문제를 축적시키면서 고속성장의 신화는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가시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이다. 외환위기 해소는 IMF지원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지만, 외환위기 해소만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가해졌다. 왜냐하면 이번의 경제위기는 단순히 외환위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 특히 세계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누적된 경제문제가 응축적으로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변화는 70년대 중반부터 행해진 세계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 단위의 경제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이를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화의 진전은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 심화를 초래하였다. 세계시장에서 조성된 경쟁 환경은 개별 자본으로 하여금 구조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는 바, 초국적 기업을 비롯한 각국의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실 재구조화는 자본주의적 기업이 내외적 위기를 돌파하여 축적을 지속하려는 과정과 역사에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70년대 이래 진행되는 재구조화는 과거의 것과 양적,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 세계화 과정에서 지속되는 기업간 경쟁심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반응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요구한 것이다. 세계적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지 않으면 조직의 생산성 성취와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국가들의 세계화전략은 재구조화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재구조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에 대한 것인데 노사관계정책에 대한 것과 고용규모에 대한 것이다. 전자가 노동에 대한 제약을 통하여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우위를 지키려는 것이라면 후자는 노동력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감축을 통한 규모축소는 흔히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라 불리고 있다. 두번째는 기업의 일부 기능을 기업외부에 하청 형태로 맡기는 아웃소싱(outsourcing)이다. 세번째는 리엔지니어링인데(re-engineering), 현재의 시장수요와 기술하에서 업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단순한 개선이 아닌 혁신의 차원에서 처음부터 기업의 조직 구조, 작업과정, 기술체계 등을 완전히 다시 재구성, 설계하는 것

을 말한다. 이같은 것들을 통하여 기업은 고정비용을 줄임은 물론 창조적 기술과 조직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원자재와 상품의 비효율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요컨대 변화된 세계경제의 상황은 개별 자본들간의 무한경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생산성 증대를 향한 압력을 증가시켰다. 이는 기업단위의 재구조화(구조조정)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이루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경우 그 동안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쟁력, 생산성은 저하되었으며, 차입경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그 결과 재벌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들은 매우 허약한 기업 구조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한국의 경제위기는 불안정한 외환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기업과 금융권이 세계화라는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발현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곧 IMF 지원을 불러왔으며, 이제 IMF체제하에서 한국사회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미증유의 재구조화를 요구받고 있다. 제주사회, 제주경제가 세계체제의 일원인 한 이러한 요구에 노출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경제체제하에서 국가단위, 지역단위의 힘은 세계체제의 힘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IMF하에서 사회현상의 변화경향을 개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IMF가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회분야와 그 현상에 한정시키며, 그 중에서도 구조조정, 실업, 사회적 불평등, 범죄현상, 의식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 2. 구조조정과 실업

IMF체제하에 전개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사회조직의 재조직화를 요구한다. 정부기관을 비롯한 각급 국가조직, 공기업, 사기업, 금융기업 등 크고 작은 이런 저런 유형의 조직들은 구조조정의 이름아래 다운사이징, 인원감축, 작업조직의 재설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예외 없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다운사이징과 인원감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조정은 IMF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진작 대비하고 사전에 행해져야 하는 일이다. 문제는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80년대이래 기업과 조직의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것이 비하면 우리의 경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구조조정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아직 제주지역내 기업, 기관 등 조직별로 구조조정의 내용이 정리, 발표되어 있지 않다. 한 예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거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어 제주사회에서도 단체별로 인원감축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9월 3일 현재 제주도는 177명, 제주시는 152명, 서귀포 82명, 북제주군 97명, 남제주군 8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정규직 감원 외에 올 연말로 예정된 비정규직 감원도 사무보조원의 경우 향후 3년까지 전원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도로보수원, 상수도요원, 청원경찰의 수를 3년에 걸쳐 20%를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올 연말에만 사무보조원 449명중 134명, 그 외 비정규직 931명중 90여명등 2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원이 직장을 잃게 된다(제민일보, 1998. 9. 5일자).

구조조정외에 실업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경기부진과 내수부족으로 인한 업체의 도산과 부도이다. 제주지역에서 실제로 작년 한해 동

안 부도낸 업체 수(244개)보다 금년 1~8월까지의 부도업체수(256개)가 더 많다. 이것은 경제위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수치이다. 작년 9~12월까지의 업체수가 무려 89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77개), 제조업(48개), 건설업(42개), 오락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31개) 등의 순으로 부도업체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제주도 자료, 1998. 9.).

실업은 경제적 수입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참여의 한 단서를 마련해주는 직업으로부터의 비개입을 의미한다. 잘 알다시피 경제적 수입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기반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인간적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해준다. 실업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거나 수입이 감소했을 때 발생하는 생활기회의 감소와 생활양식의 변화가 극명하게 발생한다. 당장은 일상적 소비생활이 위축되고 자녀의 학교 외의 교육기회에 영향을 준다. 직업은 개인의 경제적 수입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의 계기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인해 이러한 직업과 경제적 수입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박탈해갔다. 6월말 현재 전국의 실업률은 7%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말쯤이면 1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업자수가 200만에서 250만명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사회의 경우 실업률은 1998년 6월 현재 4.2%로 실업자는 11,000여명에 이른다. 이것은 작년 평균 실업률 1.1%, 실업자수 3,000명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실업자 수가 무려 266%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실업률의 규모는 공기업과 금융권, 자치단체등 정부기관, 대학등 교육기관,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가시화될 금년 말이 되면 그 여파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보장과 복지체제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은 개인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실업은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잃게 하고 가장으로서의 위엄과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실업을 당한 사람과 인터뷰를 통해 그 과정을 물어 보면 사뭇 처절하게 전달된다. “실업 후 몇 달 동안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 그 동안 바꿨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기분이 괜찮았고 또 가족들도 별 탈 없었는데, 점점 가족들 불면목도 없어지고 존재의미에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 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기비하감은 혼한 느낌이고 극단적으로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한다. 노숙자의 증가는 가출의 한 예일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숙자의 90%는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것이란 보고가 있었다. 실업상황에 있는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실업상황을 견디다 못한 부부가 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 의해 집계된 이혼건수는 98년 8월 31일 현재 1,207건으로 작년 1,493건의 80.8%에 벌써 육박해 있다. 물론 실업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작업도 모하기 위하여 정보수집과 재교육을 받기도 하고 가족전체가 위기 상황에서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도 한다.

### 3. 사회적 불평등과 범죄

IMF 사태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어떠한가. 제주사회는 감귤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과 관광을 대표적으로 하는 3차 산업이 지배적이고 제조업 등의 2차 산업은 매우 빈약한 산업구조를 갖는 사회이다(95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이 1차 산업 33.1%, 2차산업 3.9%, 3차산업 53.0%이다. 이들 산업에 각각 30.8%, 4.7%, 64.5%의 사람들이 취업해 있다). 취업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며

종사상의 지위도 자영업과 무급 가족 종사자에 비해서 피고용자의 비율은 전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작다(1995년 현재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구성을 보면 자영업주 34.0%, 무급가족 종사자 17.4%, 피용자 48.6%. 피용자중 50% 이상이 임시·일고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그런 만큼 구중간 계급인 뼈뼉부르조아지의 규모가 매우 큰 계급구조를 갖고 있다.

IMF 사태이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종사상 지위 계층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피고용자 층이다. 이들은 판매직, 서비스직과 사무직, 건설·생산직에 대부분 고용되어 있는데, 구조조정과 기업 도산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취업자들이 실업을 경험했거나 실업의 위기에 처해있다.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층이다. 이들은 IMF 체제이후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억제로 인해 수요부진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 감소를 체험하고 있거나 폐업했거나 폐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층이다. IMF체제이후 여행객의 감소가 여행사의 폐업과 등록취소를 가져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작년 한해동안 휴폐업한 여행사가 35개소에 불과한 반면에 금년 8월말까지 휴폐업한 여행사는 43개로 이미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으로 실업자의 증가는 일면 자영업자로부터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은 피고용자 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조업에 취업중인 인구가 5% 미만임을 감안하면 제주시사회에서 실직을 당한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는 상당부분 3차 산업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되어 있었다 할 수 있다.

특정 층의 실업증가와 소득감소로 IMF체제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불평등구조를 단순하게 상층계급, 중간계급, 하층계급으로 3분 모델화할 때 선진사회로 갈수록 중간층이 다른 층에 비하여 규모가 커지는 다이아몬드형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 때 중간계급은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구중간계급과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한 신중간계급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구중간계급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프롤레타리아화의 심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선진사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중간계급은 완전히 소멸하기보다는 일정규모(약 10% 내외)를 유지하면서 그 존재를 부침한다. 그러나 제주사회의 경우 2차 산업 규모가 미미하고 1,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구중간 계급은 한국사회 일반에 비해 훨씬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약 50여%(무급가족 종사자 포함)가 구중간계급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MF 체제 이후 진행된 한국의 경제상황은 중간계급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구조조정이 인원감축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자는 화이트칼라층과 자영업자층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실업의 증대는 사회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한다. 중간계층, 중간계급이 이전보다 규모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러한 중간계급은 상류층으로의 이동보다는 실업자층과 하류계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간계급 규모의 감소는 사회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붕괴를 뜻한다. 더욱이 IMF 체제이후 지속돼온 고금리 상황은 현금을 많이 보유한 상류층의 부를 크게 증가시켰다.

자산소득이 많은 상층계급은 고율의 아자소득을 통하여 부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중하류계급은 소득의 감소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부의 임금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실질임금은 8.4% 줄었고 일감도 줄어 70년대 이후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시간(월평균 196.2시간, 주당 45.2시간) 이하로 떨어졌다(동아일보, 98. 9. 3일자). 이른바 부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실질적인 계계모니를 상류층이 지닌다고 했을 때, 행복은 ‘나의 몫’이요, 고통은 ‘너의 몫’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상층에 흥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96년 첫 시행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융실명제를 유보시키고, 연 22%의 이자소득세를 24%로 상향조정하기로 함으로써 고소득층과 서민층간 세제부담의 간극은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서민가계는 늘어나는 세부담과 고물가, 고금리에 실질 소득 감소로 생활 궁핍을 경험하고 있지만 고소득층은 높은 금융이자, 음성 불로소득으로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등 소득 및 생활기회의 격차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IMF 상황이후 사회문제의 또 다른 부분인 범죄현상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행해진 범죄를 보면 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1995년의 경우 형법범 범죄유형중(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범 제외)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형은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와 강력 및 폭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 체포, 강금)였다. 재산범죄가 73.3%였고 강력 및 폭력범죄가 11.1%였다. 재산범죄가 강력 및 폭력범죄에 비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포함시켜 유형별 범죄건수를 보면 재산범죄의 비율은 35.4%로 떨어지고 강력 및 폭력범죄는 26%로 증가한다. 1995년의 경우는 다소 예외가 되지만 1993년까지만 해도 선진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는 재산범죄의 비율이 낮고 강력 및 폭력범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3년에는 강력 및 폭력범죄가 28.3%, 재산범죄가 26.6%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비행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양적

인 지표에서 한국의 소년범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행이 양상이 점차 집단화와 흉포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간에 이르러서는 재범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최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청소년 비행은 성인범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대인적 폭력 또는 살인, 유흥비 마련을 위한 절도와 강도행위 등과 같은 비행의 발생빈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통계를 들여다보면, 1995년까지의 지난 10년 동안 전체 소년범은 10만명을 전후로 증감을 계속하고 있다. 1995년에는 전년대비 14.7%나 증가하였다. 12~20세미만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인수를 나타내는 인구비도 1983년부터 1988년까지는 136.3~148.9를 유지하여 증가추세가 주춤하였다가 1993년 169.4, 1994년 167.5, 1995년 193.8을 보이고 있어 최근 상당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년비(전체 범죄자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백분비)도 1990년까지 대략 18~20선을 유지하다 1991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소년범죄의 증가율보다 성인범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5년 현재 소년범죄유형중에서 형법범은 68.8%, 특별법범은 31.2%을 유지하고 있다. 형법범중에서 폭력범은 38.2%, 재산범 37.9%, 강력범 5.1%의 순으로 많아 폭력범죄, 재산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6).

제주지방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IMF체제 이후 제주사회에서도 범죄의 증가 추세가 엿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증가인 것일 것이다. 작년 한해동안의 절도범은 1,057명이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8월까지 83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업의 증가, 소득 감소와 깊은 관련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적인 경우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새롭게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일단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합법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IMF형 범죄의 비율이 제주지역에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강력 및 폭력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갑자기 발생한 경제위기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황폐화시켰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상황의 해결책을 인내와 대화로 풀기보다는 폭력적 방법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기 쉽다. 가령 강도범은 금년 8월까지 77명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작년 66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비행의 경우도 일반 성인범죄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 4. IMF상황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식의 변화들

경제위기는 사람들의 의식을 몇 가지 점에서 변화시키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해외자본, 육지자본을 경계하던 시각에서 비교적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 한국사회 일반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MF지원과 해외자본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인식체계에 의식으로 자리잡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주사회의 경우도 관광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내자본만으로는 투자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자본, 육지자본 유입이 불가피하며,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같으면 외자유치 노력은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종합발전지원법'을 통해 외자유치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등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것도 한 변화이다. 따라서 외자나 육지자본이 제주에 들어와 사업을 벌일 경우 큰 염려 사항중의 하나가 자본의 도외 유출이라는 인식보다는 타자본이 제주에 들어와 제주

경기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는 과거보다는 사회관계에서 이기주의, 불신주의가 더욱 팽배해지는 느낌이다. 사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짝들 수 있는 의식의 하나이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 위기는 ‘나부터 먼저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증대시켰으며 이런 것들은 직장내 동료들과의 관계, 친족관계 등 사회전반의 사회적 관계에 배태되어 있다. 가령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는 ‘벗과의 관계’ 이전에 ‘적과의 관계’로 규정되어진다. 가족관계도 맥락은 비슷하다.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자금을 빌려 사업을 하다 실패했을 경우 보증자들은 그 빚을 떠 안는 등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IMF체제하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사업의 실패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업체의 도산은 실업과 빚보증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 가족내적 사회관계의 위기를 파생시키고 있다. 보기의 하나로 금년 9월 4일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집계한 채권압류현황을 보면 초중고교사 등 교직원 90명이 모두 547건에 96억 5천여만원의 보증 채무로 봉급을 압류 당하고 있다. 교원들의 압류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명보다 26명이 늘었고 건수도 173건, 액수도 3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채민일보, 98. 9. 5일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보증을 해주거나 또는 보증 부탁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의도적 불신이 아니라 구조적 상황에서 빚어진 결과적 불신인 것이다.

셋째는 소비생활에서의 근검절약을 통한 ‘조냥정신’이 생활화되고 있다. 사실 IMF이전의 소비생활에서도 ‘거품’이 지나치게 많았다. 과시 소비적이고 허례 허식적인 측면이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일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었다. 분에 넘치는 소비생활, 자기소득과 비례하지 않은 내구소비재의 구입 등 소비의식의 거품은 전통적으로 전승돼

은 생활정신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베블린(T. Veblen)이 말하는 ‘자기 과시적 소비’가 일상화됨으로써 자기의 역사적 존재와 현재적 위치 의식을 망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IMF는 바로 이러한 생활의 거품을 걷어내고 전승돼온 근검절약의 미덕을 우리의 의식속에 다시 불러들이는 계지를 제공해주었다. 그렇지만 상층의 소비생활은 여전히 과시 소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해외여행이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도 상류층의 소비행태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IMF체제하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다. 조냥정신의 회복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이기주의와 불신주의는 부정적인 것이다. 육지자본과 외자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개방적 의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 5. 다시 요청되는 제주정신

IMF체제에서 벗어나고 21 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과거부터 전래되어온 부적절한 의식을 새 세기에 적합할 수 있는 의식으로 전환시키고 제주정신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변화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 못지 않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먼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정신 유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제주인들의 정신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주사회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적 측면이 대내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반면에 외적 측면은 대외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셋째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전통적인 미덕을 계승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에 두고 제주정신을 이념형적으로 정리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이러한 내용은 이미 필자를 포함한 공저자들에 의해 다른 글에 발표된 바 있다). ‘조낭정신’(근검 절약의 생활화), ‘신삼무정신’(신삼무의 사회화), ‘혼저 읍서에정신’(열린태도, 의식 및 진취적 행동), ‘이어도정신’(제주사회의 세계화), ‘새수놓음정신’(참여적 공동체의 구현) 등이 그것이다.

‘조낭정신’은 근검절약적인 대내적 생활원리를 추구하는 만큼 현재 지향적이고 미시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의 생활화는 조상들의 생활 지침을 현대사회에서 계승시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생활철학으로 그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을 뜻한다. ‘신삼무정신’은 범죄 없고 생산적 삶이 중시되는 대내적 사회구조의 형성을 회구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이다. 이 유형은 현재와 같이 ‘삼무(三無)현상’이 결여된 사회상황에서 삼무현상을 새롭게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삼무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한편 ‘혼저 읍서에정신’은 사회성원 각자가 대외적 사회관계에서의 자신감, 열린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재 지향적이며 미시적 자아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도정신’은 대외적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거시적 사회수준의 노력을 통하여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수놓음정신’은 위의 네 가지 제주정신을 연결하는 기본 고리로 제주인의 단결을 기초로 참여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밑바탕을 이룬다.

요컨대 경제위기와 IMF 상황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업과 사회불평등의 심화와 범죄의 증가, 이기주의·불신주의 등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생존의 기반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사회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극복해야 할 상황이라면, 극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도민적 지혜와 개인적 성찰이 이 어려운 IMF 체제하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자기성찰적 반성이 도민 모두에게 요청됨은 물론 공동체적 슬기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위기와 연관된 IMF 체제를 제주사회를 새롭게 재조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박의 닻을 내리고 있는 제주사회를 위한 일일 것이다.